

개혁기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영남*

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과 성격, 중국 민족주의가 중국의 대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관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제시한다. 1990년대에 다시 등장한 중국 민족주의는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중심인 국가주의 또는 국가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재등장한 민족주의는 “치욕과 굴욕의 세기”를 거쳐 형성된 중국 국민들의 피해의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렇지만 중국 민족주의가 곧바로 중국의 대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중국 민족주의는 통치 엘리트의 단결 정도, 경제 발전의 지속성 여부, 중국의 미국과의 관계 등 세 가지 요소를 매개로 중국의 대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1. 왜 민족주의인가?

1990년대 중국에서는 ‘민족주의의 물결’이 ‘민주화의 물결’을 압도하는 현상이

*서울대 국제지역원 전임강사. 관심분야는 개혁기 중국의 의회제도 변화와 정치참여 등이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개혁기 구조와 역할의 변화>(나남, 2000); “Symbiotic Neighbor or Extra-Court Judge?: The Supervision over Court by Chinese Local Peoples Congress,” *The China Quarterly* (Forthcoming); “From Rubber Stamp to Iron Stamp: The Emergence of Chinese Local Peoples Congresses as Supervisory Powerhouse,” *The China Quarterly* 171 (September 2002) 등이 있다(연락처: 880-5811, e-mail: yncho@snu.ac.kr).

벌어졌다. 그 결과 민족주의는 이제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주의 이념을 대신하여 공산당 지배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Zhao 2000c, 10; Downs and Saunders 1998/99, 118). 또한 민족주의는 중국의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서 중국은 1990년대에 들어 자신의 신장된 국력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 정치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시도는 냉전 종식과 함께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이익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핵 확산, 미사일 기술 이전,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ce), 인권, 통상, 대만(臺灣)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이 자주 충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충돌을 통해 이미 발전 중에 있던 중국 민족주의는 더욱 고조되었고, 그것은 다시 중국의 대외 관계, 특히 대미·대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중국의 대외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해 타당한 대중국 외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국 민족주의의 성격과 그것이 중국의 대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실제로 “중국 위협론(China threat)”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는 중국 민족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놓여있다(Chang 2001, 8; Zhao 2000c, 10). 예를 들어, 중국 위협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인 번스타인(R. Benstein)과 먼로(R. Munro)는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 장기적인 적대 세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중국의 증대된 군비와 군사력, 독재 국가적 성격과 함께 팽창적 성격의 민족주의를 제시했다(Benstein and Munro 1997, 19, 26, 31). 또한 이런 분석에 근거하여 이들과 일부 연구자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 중국 포용(engagement) 정책을 비판하고 대신 봉쇄(containment) 정책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Benstein and Munro 1997, 31; Gertz 2000, 202; Chang 2001, 242). 반대로 일부 연구자들은 중국 민족주의에 대해 이와 다른 분석을 제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중국 위협론을 비판하면서 포용 정책의 지속을 주장했다(Gill 1999, 75; Lieberthal 1995, 43; Miles 2000-01, 66; Ross 1997, 43; Nathan and Ross 1997, 229, 231, 236).

이 글은 이처럼 현재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중국의 민족주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이 글에

서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 민족주의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1990년대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재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렇게 해서 등장한 민족주의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의 상호 관련성(관계)을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주로 민족주의가 중국의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필자는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과 전망을 제시할 것이다.

2. 중국 민족주의 재등장 배경과 성격

1) 배경

1990년대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된 데에는 공산당 정권의 동원, 지식인의 자기 성찰, 경제 성장과 국력 증강, 민족 정체성의 위기, 외부 세력의 위협 등 여러 가지 국내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Zheng 1999, 17, 18; Schubert 2001, 130-131; Xu 1998, 92-98). 그런데 이런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기존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민족주의 재등장의 배경을 국내에서 찾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 민족주의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때문에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짜오(S. Zhao)에 의하면, 1990년대 중국 민족주의는 공산당 정권의 선전 및 대중 동원과, 지식인의 자발적인 계기로 다시 등장할 수 있었다. 즉, 공산당 정권은 1989년 천안문(天安門) 사건 이후 서구 사상의 영향을 막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인은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해체)를 보면서 국가 분열을 막고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제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민족주의는 외부 위협보다는 내적 위기의 결과로 다시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Zhao 1998, 330; Zhao 2000b, 254; Zhao 2000c, 23, 41). 이와 비슷하게 프리드만(E. Friedman)과 크리스텐센(T. Christensen)

은 모택동(毛澤東) 시기의 국가 건설 실패와 민족 정체성의 위기(Friedman 2001, 118-119; Christensen 1999, 250)에서, 로빈슨(T. Robinson)과 왕(F.L. Wang)은 중국 경제 발전과 국력 신장(Robinson 1994, 1994; Wang 1999, 34)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찾았다.

다른 하나는 대외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대 중국 봉쇄 정책, 미일(美日) 신(新)안보 지침, 미일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중국 위협론의 제기와 같은 실제적 혹은 가상적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response)으로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중국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¹⁾ 예를 들어,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은 이전에 중국이 차지했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현재의 중국 국력을 보았을 때에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부당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것이다(Yan 2001, 34, 36).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의 대 중국 금수 조치, 1993년 중국 상선 은하(銀河)호 수색(미국은 이란으로 화학무기재료를 운반한다는 혐의로 이 배를 강제 수색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과 2000년 올림픽 유치 신청 방해(북경과 시드니의 경쟁에서 미국은 시드니를 지지했다), 1995년 이등휘(李登輝) 전 대만총통(總統)에 대한 비자 발급과 대만에 대한 대규모 첨단 무기 판매, 정부 및 언론의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 1999년 5월 벨그라드(Belgrade) 중국 대사관 폭격, 2001년 4월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의 충돌 등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부당하게 견제 및 방해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 같은 위협에 맞서 중국에서는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 이 견해의 주장이다.

중국 민족주의에 대한 위의 두 관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된 데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중국 민족주의를 외부 세력에 대한 “대응(response)” 또는 “반응(reactiveness)”으로 파악하는 주장은 중국밖에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짜오(S. Zhao)는 1990년대 민족주의의 특징으로 도구성(instrumentality) 및 국가주의(statism)와 함께 반응성을 들었고(Zhao 2000c, 16-21), 이동륜은 도구적 특성, 반응적 특성, 내부지향성을 주장했다(이동윤 2001, 269-271). 쟁(Y. Zheng)도 반응적 성격을 중국 민족주의의 주된 특징으로 간주했다(Zheng 1999, 108, 110).

첫째, 1990년대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된 데에는 국내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중국에서는 19세기 중엽 영국 등 서양 세력의 침입과 함께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추구하는 근대적 의미의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 이후 일본의 침략과 함께 민족주의는 더욱 고조되었고, 공산당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중국에서 민족주의가 형성 및 확대된 것은 외부 세력의 침입 때문이었고, 이런 면에서 이 당시의 중국 민족주의는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다시 등장한 민족주의는 이것과는 다르다. 이때의 민족주의는 경제 발전의 성과, 특히 구 동구 사회주의 국가 및 소련의 몰락과 대비되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초한 대중적 자신감, 그리고 1980년대의 지나친 서구 문명 동경에 대한 지식인의 자성과 중국 문화에 대한 재발견, 마지막으로 1991년부터 준비되고 1993년 본격 시작된 “애국주의(愛國主義) 교육운동”과 같은 공산당 정권의 대대적인 선전 운동이 맞물려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1990년대에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게 된 데에는 대내적 요소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미국과의 갈등은 이미 발전하고 있던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했을 뿐이다.

둘째, 1990년대 중국 민족주의의 재등장을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문제가 있다. 길(B. Gill)이 지적했듯이, 중국학자들은 국제 정치에서 중국은 ‘객체(object)’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국내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힘을 쏟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평화 정책을 추구할 뿐이다. 그래서 중국이 국제 정치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는 다른 국가가 중국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관점에서는 중국도 국제 정치의 중요한 ‘주체(subject)’라는 사실, 즉 중국의 태도와 행동이 아시아 주변 국가와 세계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Gill 2001, 29-30). 이렇게 되면 중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외부 세력(주로 미국과 일본)의 잘못으로 돌아가고 중국이 취한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건 중국 민족주의를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격

민족주의는 다른 국가(민족, 지역)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형성 및 발전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성격에는 다른 국가(민족, 지역)에 대해 한 국가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태도(예를 들어, 공격적, 패권적, 방어적)가 포함된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분석할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을 제외한 중국 민족주의의 일반적 성격을 검토하려고 한다.

기존의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민족주의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민족주의의 재등장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에 기초하여 중국 민족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중국 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중국 민족주의는 국가가 주도(state-led)하고 국가가 중심(state-centric)인 국가주의(statism) 또는 국가 민족주의(state nationalism)이다(Zhao 1997, 732; Zhao 2000c, 20-21; Chang 2001, 180; Zheng 1999, 21). 이것은 중국 정부의 “애국심”에 대한 강조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의 공산주의 국가는 민족 의지의 구현체이며, 공산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발전과 부강한 국가로의 변모는 민족적 대의이고 목표이다(Zhao 1997, 732). 또한 개인은 중국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당-국가에 충성해야 한다(Chang 2001, 180).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 민족주의는 근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등장했던 개인적-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대비되는 집단적-권위주의적(collectivistic-authoritarian) 민족주의이다(Zhao 2000b, 266).

둘째, “치욕과 굴욕의 세기(the century of shame and humiliation)”를 거쳐 형성된 중국 국민들의 서구에 대한 피해의식은 1990년대 다시 등장한 중국 민족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일부 연구자가 중국 민족주의를 “상처받은(wounded)” 민족주의(Chang 2001; Benstein and Munro 1997, 19, 29), “좌절된(frustrated)” 민족주의(Yong and Gray 2001, 5)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중국 국민들은 과거의 모욕을 씻고 싶은 강한 열망에 휩싸여 있고, 중국을 강한 국가로 발전시키는 것(=국제 사회에서 일정한 권력을 소유하는 것)에 크게 집착한다(Benstein and Munro 1997, 29). 또한 이 때문에 중국은 인권·티베트·대만 문제 등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소한 개입도 자국의 주권 및 영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여 아주 민

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의식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수 및 정부 간 교류 금지 조치에 대해 중국이 느꼈던 압박감 — 소위 “포위 심리(siege mentality)” — 에서,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 서구 자본주의 세력이 추진하고 있다는 “평화적 체제 진보(和平演變)” 기도에 대한 중국의 끊임없는 경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민족주의가 강한 반미(反美) 성향을 띠는 것도 또한 이 때문이다.

셋째, 일부 연구자들은 1990년대 재등장한 중국 민족주의의 특징 중의 하나로 실용성(pragmatism) 또는 도구성(instrumentality)을 든다(Zhao 2000a, 38; Zhao 2000b, 254; Zhao 2000c, 16-17; 이동률 2001, 269-271). 이에 따르면, 중국 민족주의는 국가와 지식인이 “신념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등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사용한 도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은 민족주의의 가치 그 자체를 신봉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대외 팽창적, 공격적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 같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主義)나 이념 중에서 도구적, 실용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수용한 것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 때문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현실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아주 유용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를 선택한 것도 그 가치(평등 지향성)에 대한 존중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중국이 직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하고 유용한 이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중국 민족주의가 실용성 또는 도구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다음으로, 민족주의를 제창 및 주도한 주체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의 성격을 구분하는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쟡(Y. Zheng)은 서유럽 민족주의의 기원을 분석한 앤더슨(B. Anderson)의 연구(Anderson 1983, 111-142)를 수용하여 중국 민족주의를 관주도(official) 민족주의와 대중(popular) 민족주의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일반 대중들 사이에 퍼져있는 민족주의(대중 민족주의)는 팽창적, 배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산당 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민족주의(관주도 민족주의)는 그렇지 않다. 즉 관주도 민족주의는 경제 발전, 정치적 안정 그리고 민족 통일(대만과의 통일)을 통해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애국주의”일 뿐이라는 것이

다(Zheng 1999, 88, 91). 이런 이유로 쟁은 중국 민족주의가 팽창적 대외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주장에 비판적이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 것인가는 서양 세력이 중국을 강국의 하나로 수용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같은 근거에서 그는 포용 정책이 중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Zheng 1999, 159).

그런데 중국 민족주의를 관주도 민족주의와 대중 민족주의로 나누는 것에 대해 필자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미 앞서서도 말했듯이, 1990년대 중국 민족주의는 다양한 요소의 영향하에 등장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단일한 것도, 통일된 것도 아니었다(Unger 1996, xvii-xviii; Fewsmith and Rosen 2001, 171). 다만 그것을 이용하려는 여러 세력들의 의도와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 속에서 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통치 엘리트들은 국민 통합과 동원을 위해, 다시 말해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이용하려고 한다. 1990년대 초·중반에 전국적으로 전개된 “애국주의 교육운동”은 그런 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Zhao 1998). 이에 비해 “신좌파”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비판하고 미국 등 서구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민족주의를 이용한다(宋强 等 1996). 한편 국민들은 반일(反日) 감정과 같이 역사 속에서 형성된 민족적 정서에 기초해서 국가 또는 일부 지식인 집단이 주창하는 민족주의를 지지한다. 따라서 중국 민족주의를 분명히 구분되는 관주도 민족주의와 대중 민족주의로 나누고 전자가 지배적이라고 하는 주장, 동시에 이런 이유로 중국 민족주의가 공격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 민족주의의 분화 현상에 주목하여 기존 민족주의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프리드만(E. Friedman)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새로운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 형성을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경향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레닌주의적·권위주의적·보수적 성격의 북방 민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남방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교이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이 두 가지 경향의 경쟁 결과에 따라 중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Friedman 1995, 16-18; Friedman 1996,

182). 이와 유사하게, 슈버트(G. Schubert)도 광둥성(廣東省) 등 남부 지역의 지방주의와 대만 문화의 전파에 주목하여 중국에는 현재 전통적 민족주의(강국 추구, 애국주의, 지적 민족주의) 말고도 새로운 자유주의적 민족주의가 형성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Schubert 2001, 154-155).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이들의 주장은 아직 성급한 것 같다. 설사 이들의 주장대로 중국에 새로운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직 남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그것이 단기간 내에 지배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3.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국 민족주의의 성격에서 대외 관계의 성격을 직접 도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변수(요인)를 분석하여 양자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1) 민족주의 성격과 대외 관계

앞에서 보았듯이 중국 민족주의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민족주의가 중국의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새롭게 등장한 민족주의가 중국의 대외 행위를 공격적, 팽창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낙관적·긍정적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럴 것이라고 보는 비관적·부정적 견해이다(Metzger and Myers 1998, 26, 30).

먼저, 낙관적·긍정적 견해를 살펴보자. 이를 주장하는 학자로는 앞에서 살펴본 짜오(S. Zhao)와 쑹(Y. Zheng)이 대표적이다. 짜오는 중국 민족주의가 기본적으로 국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때문에 제기된 실용적인 것으로, “방어적(defensive)”, “대내적(internal)”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Zhao 2000a, 42). 따라서 중국 민족주의가 비록 민족적 이익이나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하고 비타협

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중국의 대외 행위를 특별히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Zhao 2000c, 14-15, 29). 쩡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즉 중국에서 주도적인 민족주의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관주도 민족주의이며 그것은 반응적(reactive) 특징,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세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민족주의를 대외 팽창적, 공격적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Zheng 1999, 159). 비록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샴바우(D. Shambaugh)도 중국 민족주의를 “외형적으로는 단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반응적인 방어적(defensive) 민족주의”라고 보았다(Shambaugh 1995, 205). 타운젠드(J. Townsend)도 문화주의에서 민족주의(culturalism-to-nationalism)로 변화한 근대 중국의 민족주의를 분석하면서 중국 민족주의는 국가 민족주의로서 국제 활동에서 조심스럽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띠다고 주장하였다(Townsend 1996, 22).

한편 디아오위 섬(釣魚島)을 둘러싸고 1990년과 1996년 두 차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벌어졌던 분쟁을 사례로 분석한 다운즈(E.S. Downs)와 손더즈(P.C. Saunders)도 위에서 살펴본 주장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즉 그들에 따르면 중국 민족주의는 “국내 청중용”으로, “민족주의가 증강된 중국의 국력과 어우러져 (대외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산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 또는 최소한 시기 상조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두 차례 분쟁에서 분쟁을 시작한 것은 모두 일본이었고 이에 대해 홍콩과 대만의 주민들이 반일 운동을 격렬하게 전개한 것에 비해, 중국 당국은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경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과 시장 확보)를 위해 중국 국민들의 반일 운동을 끝까지 불허했다는 것이다(Downs and Saunders 1998/99, 144).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이런 주장에 비판적이다. 예를 들어, 프리드만(E. Friedman)은 중국 민족주의가 패권적, 대외 팽창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Friedman 2001, 126). 맥코믹도(B. McCormick)도 중국 민족주의가 중국 정부의 기존 세계 질서에 대한 불만과 성장하는 국력과 결합하여 “폭발적(explosive)”이 될 수 있고, 대만·남중국해(南中國海)·남사열도(南沙列島) 문제 등과 관련하여 예기치 못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McCormick 2000a, 321; McCormick 2000b, 335, 337). 창(M.H. Chang)도 상처받은 자존심, 역사적 분노, 그

리고 구토회복주의(irredentism)의 성격을 띠고 있는 중국의 국가 민족주의가 부상하는 중국의 국력과 정치적 권위주의와 결합할 때 매우 공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Chang 2001, 227, 241).

그런데 필자는 중국 민족주의에 대해 낙관적 관점을 취하든 아니면 비관적 관점을 취하든 상관없이 다운즈와 손더즈를 제외한 나머지의 분석 방법 즉, 민족주의의 성격에서 중국 대외 관계의 성격을 추론하는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선, 민족주의가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쳐 대외 정책을 그런 성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처럼 소수 최고 통치 엘리트가 대외 정책 결정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에 유행하는 이념과 대외 정책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또한 이런 식의 추론을 통해서도 일정한 성격을 지녔다고 가정할 민족주의가 시기와 사안,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원인)를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90년과 1996년 디아오위 섬 분쟁에서 보여주었던 중국 정부의 태도는 1995년과 1996년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대치했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또한 똑같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1999년 5월 유고 벨그라드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중국 정부의 행동은 2001년 4월 미국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해남성(海南省) 부근에서 충돌했던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설사 민족주의가 특정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것이 중국의 대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라도, 거기에는 다양한 요인(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사안과 상황에 따라 중국이 다른 대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주요 변수와 대외 관계

민족주의가 중국의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주요 변수를 설정하고 그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으로는 화이팅(A.S. Whiting)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중국 민족주의를 국민의 애국심을 조장하고 태도를 목표로 한 확증적(affirmative) 민족주의, 국민의 분노를 증대시키고 행동을 동원하려는 공격적(aggressive) 민족주의,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 위치한 주장적

(assertive) 민족주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민족주의가 중국의 대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것인가는 다섯 가지 요소(factors), 즉 ① 파벌 정치(factional politics)와 ② 지도력의 불안정성이라는 국내 요소와, ③ 대외 협상, ④ 외부 도전, ⑤ 세계 세력 균형의 변화라는 국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Whiting 1995, 295-296; Whiting 1983, 928-929). 이런 관점에서 1984년부터 1994년 사이의 민족주의와 중국의 대외 관계를 분석했을 때, 세 가지 유형의 민족주의 중에서 주장적 민족주의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또한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벌 정치였다. 즉 중국 민족주의가 대외 관계에서 어떤 형태를 띠 것인가는 덩소평(鄧小平)과 주장적 민족주의의 근원이 되는 집단(좌파 이데올로기 파벌 및 인민해방군) 사이의 상대적인 힘의 강도에 의해 결정되었고, 덩소평의 개인적 권위로 인해 그의 관점(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 환경 조성 과 이를 위한 조용하고 협조적인 외교 정책)이 우세를 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Whiting 1995, 315).

또한 램턴(D. Lampton)도 화이팅의 방법에 기초하여, ① 엘리트 응집력, ② 세계의 세력 균형, ③ 미국의 정책, ④ 중국 내 좌파와 ⑤ 군부의 힘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의 변화에 의해 중국 민족주의가 애국주의에서 공격적 민족주의로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Lampton 2001a, 257).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퓨스미스와 로젠(J. Fewsmith and S. Rosen)도 엘리트 응집력과 중미(中美) 관계라는 변수에 따라 민족주의적 여론의 강도가 다르게 표출된다고 보았다. 즉 엘리트 응집력이 낮고(=엘리트 사이의 불화 심화) 중미 관계의 긴장도가 높을 때 여론은 들끓고 이때 중국 지도부는 대외 정책 결정에서 여론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 국민 여론은 중국의 대외 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엘리트 응집력이 높고 중미 관계의 긴장도가 낮을 때 여론은 가라앉고 중국 지도부는 여론에 대한 고려 없이 외교 정책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Fewsmith and Rosen 2001, 174).

이상의 분석은 민족주의의 성격에서 중국의 대외 관계를 직접 도출하려는 시도 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즉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의 상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런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요소를 제시해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또한 그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몇 가지 보완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지난 경험에 대한 분석(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의 상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확인(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다운즈와 손더즈의 연구²⁾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요소 선정의 자의성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이러 작업을 통해 우리는 “선입견에 근거한 추론”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는 외교 정책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분석 틀과 이론을 이용하여 중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려는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Rose 1998, 144-172). 물론 이 경우에는 적실성의 문제, 즉 그런 분석 틀과 이론이 중국 사례를 설명하는데 얼마나 타당하고 유용한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Whiting 1994, 506-523; Rosenau 1994, 524-551).

4.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에 대한 관점과 전망

1978년 이후 중국에서 대외 관계의 초점은 국가 안전의 확보에서 경제 발전에 유리한 평화로운 국제 환경 조성으로,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이데올로기는 모택동의 급진주의에서 등소평의 실용주의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대외 정책의 내용과 그것의 결정 과정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대외 정책 결정에서 국가 이익(state interest)의 관점이 맑스-레닌주의적 관점(프롤레타리아 국

2)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공산당 정권은 경제적 업적과 민족주의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런데 1990년과 1996년 디아오위 섬을 둘러싼 중일 분쟁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적 업적을 위해 민족주의를 종종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고조를 팽창적 대외 정책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논리는 재고되어야 한다. 즉 중국의 대외 정책은 민족주의 이외에 경제적 업적이라는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그래서 대외 정책은 최종적으로 이 두 요소의 상호 작용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Downs and Saunders 1998/99, 114-146).

제주의,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통합)을 대체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감소하고 대신 외교 관련 부서나 기타 국가 기관의 권한이 증대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중앙이 대외 정책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던 것에서 이제는 지방도 일부 권한을 행사하는 대외 정책 결정의 분권화가 이루어졌다(Wang 1994, 486; Robinson 1994, 568; Wang 1999, 33-34; Liberthal 1997, 268-269; Ning 2001, 57-58; Ning 1997; Miller and Xiaohong 2001, 144-149; Economy and Oksenberg 1999, 26).

한편 개혁기에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요소들이 대외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이카너미(E. Economy)와 옥센버그(M. Oksenberg)에 의하면, 중국의 대외 활동은 ① 중국 외교의 목표(주권 확보, 국가 안전 유지, 대만의 지위 약화, 우호적 이미지 배양, 경제적 이익 증진), ② 국제 체제의 성격, ③ 국내 정치적 이익 증진 그리고 ④ 중국 지도부의 전술이라는 네 가지 요소(factors)의 영향을 받는다(Economy and Oksenberg 1999, 20-25). 이에 비해 샴바우(D. Shambaugh)는 ① 국내적 요소(권력 승계의 정치, 체제 불안정성, 중앙 통제권의 이양), ② 정책결정 환경 그리고 ③ 통치 엘리트의 세계관(사회화 과정, 1989년의 충격, 민족주의) 등 세 가지 요소가 중국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Shambaugh 1996, 188-204).

넓게 보면 민족주의와 중국 대외 관계의 관계도 위에서 지적한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요소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내 정치적 요소로는 ① 통치 엘리트의 단결 정도(파벌 투쟁)와 ② 경제 발전의 지속성 여부가 중요하다. 중국 정치개혁의 정도(민주화의 정도)와 국민의 영향력은 부수적이지만 일정한 역할을 하는 국내 정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 정치적 요소로는 ③ 중국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긴장 정도)가 중요하다. 대만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것이 주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예를 들어, 대만의 국제적 지위 상승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미사일 방위 체제에 대만을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정책 등)을 놓고 볼 때 중국과 미국의 관계라는 요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정치적 요소로서 통치 엘리트의 단결 정도(파벌 투쟁)가 중요하다. 중국 정치체제의 최대 문제 중의 하나는 권력 이양과 관련된 안정된 제도적 장치

가 부재하고 이 때문에 권력 승계과정에서 통치 엘리트 내부에 항상 심각한 파벌 투쟁이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1987년 호요방(胡耀邦) 실각이나 1989년 조자양(趙紫陽) 실각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기존 권력 집단(개인)이나 이에 도전하는 집단(개인) 모두는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얻기 위해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정서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주로 미국과의 관계 및 대만 문제에서 중국 지도부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통치 엘리트의 단결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적으로 강경한 민족주의적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미국과의 갈등 심화, 남중국해·남사열도·디아오위 섬 등 영토 분쟁 지역의 긴장 고조 등 중국의 대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새로운 통치 엘리트들은 이전의 지배 집단보다 권력 기반이 취약하고 그래서 이들이 민족주의에 의존할 가능성은 전보다 커졌다. 우선, 이들은 모택동이나 등소평이 갖고 있던 개인적인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들은 등소평이 일부 국민과 보수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들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기초하여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회주의 이념의 국민에 대한 설득력은 계속 약화되었고, 경제적 성과에 근거한 정통성도 중국의 세계 체제 편입 이후 불확정적인 요소의 증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치 엘리트가 가장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집단인 군부를 얼마나 잘 통제(장악)할 수 있는가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새로운 통치 엘리트들이 통치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경한 민족주의에 의존하고 이것이 다시 중국의 대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정치적 요소로서 경제 발전의 지속성 여부도 중요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경제 발전과 민족주의는 현재 공산당 정권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양대 지주이다. 그런데 만약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현 정권은 민족주의에 더 크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돌발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산당 정권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고조된 국민들의 민족적 요구에 따라 공격적 대외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경제 성장이 지속되

면 현 정권의 민족주의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민족주의의 성격도 좀더 유연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정치개혁의 정도(민주화의 정도)도 민족주의와 중국의 대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중국이 좀더 급격하고 빠른 민주화 개혁을 추진하고 그것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면, 현 정권의 민족주의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질 것이다(Downs and Saunders 1998-99, 144). 이렇게 되면 민족주의의 성격도 좀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바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중국의 대외 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국민의 영향력 증대는 아직까지는 부수적인 요소이지만 그 중요도는 점차 증대하고 있다. 개혁기에 일반 국민이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보다 분명히 증대되었다. 그래서 공산당 지도부는 대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국민의 민족주의적 동향에 신경을 쓰고 있다(Lieberthal 1997, 272; Fewsmith and Rosen 2001, 186; Saunders 2000, 59). 특히 애국주의 교육 운동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서방 세력에 대한 비판 정신을 강조했고 그 결과 국민의 민족주의적 성향, 특히 반미 감정은 전보다 강해졌다(Zhao 1998, 297). 한편 강화된 국민들의 민족주의가 현 정권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중국의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었듯이, 민족주의 운동은 “반외세”에서 “반정부”로 바뀔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국민의 민족주의적 요구가 일정선 이상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1996년 디아오위 섬 분쟁 시 반일 시위를 금지한 것이나 2000년 대학생들의 천 수이비엔(陳水扁) 대만 총통 반대 시위를 금지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Zhao 2000c, 23; Fewsmith and Rosen 2001, 162-163, 173).

셋째, 국제 정치적 요소로서는 중국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긴장 정도)가 중요하다. 중국의 대외 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중국의 이들과의 긴장 정도는 중국 내에서의 민족주의 고조와 대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Fewsmith and Rosen 2001, 189; Miles 2000-01, 66-67). 구체적으로 중국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중국 통치 집단은 미국과 일본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강경한 민족주의적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호요방 실각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 추진과 중국

국민들의 이에 대한 반감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Friedman 2000, 102; Zheng 1999, 101). 또한 1999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혐의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후 실각설이 돌았던 주용기(朱鎔基) 총리 사례도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宗海仁 2001, 71-99). 또한 통치 엘리트들은 미국과 일본에 맞서기 위해 국민의 민족주의를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 거세어지면 질수록, 공산당 정권은 국민의 민족주의를 동원하고 그것은 다시 중국을 강경한 대외 정책으로 몰아부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대만 문제로 인해 중미 관계가 심각한 긴장 상태에 놓일 가능성은 매우 컸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다. 1995년과 1996년 이등회 전 총통의 미국 방문과 총통 선거를 놓고 발생했던 대만 해협의 긴장과 군사적 대치를 동반한 중미 관계의 악화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만약 대만 당국이 현재의 양안(兩岸)관계를 벗어나 새로운 시도(예를 들어 독립 선포)를 하고 이에 미국이 동조한다면 중국 내 민족주의는 크게 고조되고 이것이 중국을 공격적 행위로 내몰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 민족주의와 대외 관계는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우선, 중국 민족주의는 국내적으로는 국민 통합과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기존 국제 질서에 편입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통치 엘리트의 응집력이 높아 과별 투쟁 과정에서 민족주의를 동원할 필요성이 적고, 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치 개혁을 통해 민주화가 좀더 빨리 진행됨으로서 현 정권이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민족주의에 의존해야 하는 필요성이 줄어들 때,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국이 (대만 관계를 포함하여) 미국 및 일본과 큰 문제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 민족주의가 국내적으로는 소수민족과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등 공산당의 강권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국제적으로는 영토 회복과 국제적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는 공격적인 대외 정책으로 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국내적, 국제적 요소가 악화될 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공산당 정권이 국민들의 분출하는 민족주의적 요구

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1999년 5월 발생했던 벨그라드 중국 대사관 폭격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공산당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 및 통제할 수 없어 국민의 요구를 일부 허용(대학생들의 북경 미국 대사관 앞 시위 허용 및 차량 지원, 성도(成都) 등 10여 개 대도시에서 미국 영사관과 시설물에 대한 공격 방관 등)했던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중국 지도부가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요구에 압도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Fewsmith and Rosen 2001, 173-174; Miles 2000-01, 52, 56; Wu 2000, 41-43).³⁾

3) 한편 중국 국민들이 《광명일보(光明日報)》에 보낸 중국 대사관 피폭 희생자 추도 편지를 분석한 그리즈(P.H. Gries)는, 이때 중국 국민이 보인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으로 결코 “중국 위협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벨그라드 폭격 사건에서 표출된 중국 국민들의 태도는 “모욕의 세기(Century of Humiliation)”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희생 담론(victimization narrative)에 꼭 맞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Gries 2001, 41). 이런 그리즈의 주장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중국 정부가 취한 행동이 갖는 의미, 즉 극단적인 경우 공산당 정권은 국민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수용하여 호전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 이동률(2001), “중국 민족주의가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미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 257-277.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윤형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서울: 나남. 1991.
- Bachman, David (1998), “Structure and Process in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Policy.” Kim (1998), 55-87.
- Barne, Geremie R. (1996), “To Screw Foreigners Is Patriotic: China’s Avant-Garde Nationalists.” *Unger* (1996), 183-208.
- Bernstein, Richard and Munro, Ross H. (1997),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76, No. 2 (March/April 1997). 18-32.
- Chang, Maria Hsia (2001), *Return of the Dragon: China’s Wounded Nationalism*.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Christensen, Thomas J. (1999), “Pride, Pressure, and Politics: The Roots of China’s Worldview.” Deng and Wang (1999), 239-256.
- Deng, Yong and Wang Fei-Ling, eds. (1999), *In the Eyes of the Dragon: China Views the World*. Lanham and Boulder: Rowman & Littlefield.
- Dittner, Lowell and Kim, Samuel S. (1993), *China’s Quest for National Identit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Downs, Erica Strecker and Saunders, Philip C. (1998/99), “Legitimacy and the Limits of Nationalism.” *International Security* 23, No. 3 (Winter 1998/99). 114-146.
- Economy, Elizabeth and Okenberg, Michel (1999), “Introduction.” Elizabeth Economy and Michel Oksenberg, eds. *China Joins the World: Progress and Prospects*, 1-41. New York: Council in Foreign Relations Press.
- Fewsmith, Joseph and Rosen, Stanley (2001), “The Domestic Context of Chinese Foreign Policy: Does “Public Opinion” Matter?” *Lampton* (2001), 151-187.
- Fewsmith, Joseph (2001), *China Since Tiananmen: The Politics of Transition*.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dman, Edward and McCormick, Barrett L. (2000), *What If China Doesn’t Democratize: Implications for War and Peace*. Armonk, New York: M.E. Sharpe.
- Friedman, Edward (1995), *National Identity and Democratic Prospects in Socialist China*. Armonk, New York: M.E. Sharpe.
- _____ (1996). “A Democratic Chinese Nationalism.” *Unger* (1996), 169-182.

- _____ (2000), "Preventing War Between China and Japan." Friedman and McCormick (2000), 99-128.
- _____ (2001), "Still Building the Nati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China's Patriotic Fever." Hua (2001), 103-132.
- Gertz, Bill (2000), *The China Threat: How the People's Republic Targets America*.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 Gill, Bates (1999), "Limited Engagement." *Foreign Affairs* 78, No. 4 (July/August 1999). 65-76.
- _____ (2001), "Discussion of 'China: A Responsible Great Power' ."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 No. 26 (February 2001). 27-32.
- Gries, Peter Hays (2001), "Tears of Rage: Chinese Nationalist Reactions to the Belgrade Embassy Bombing." *The China Journal* 46 (July 2001). 25-44.
- Hua, Shiping, ed. (2001), *Chinese Political Culture, 1989-2000*. Armonk, New York: M.E. Sharpe.
- Huntington, Samuel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72, No. 3 (Summer 1993). 22-49.
- Johnston, Alastair Iain and Ross, Robert S. (1999), *Engaging China: The Management of an Emerging Pow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Kim, Samuel S. ed. (1998),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Policy Faces the New Millennium*. Fourth Edition.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Lampton, David M. (2001), *Same Bed, Different Dreams: Managing U.S.-China Relations, 1989-2000*.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ed. (2001),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ieberthal, Kenneth (1995),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74, No. 6 (November/December 1995). 35-49.
- _____ (1997), "Domestic Forces and Sino-U.S. Relations." *Vogel* (1997), 254-276.
- McCormick, Barrett L. (2000a), "U.S.-PRC Relations and the "Democratic Peace." Friedman and McCormick (2000), 305-328.
- _____ (2000b), "Conclusion: Points of Agreement and Disagreement and Thoughts on U.S.-China Relations." Friedman and McCormick (2000), 329-342.
- Metzger, Thomas A. and Myers, Ramon H. (1998), "Chinese Nationalism and American Policy." *Orbis* 42, No. 1 (Winter 1998). 21-36.
- Miles, James (2000-2001), "Chinese Nationalism, US Policy and Asian Security." *Survival* 42, No. 4 (Winter 2000-2001). 51-71.
- Miller, H. Lyman and Liu, Xiaohong (2001), "The Foreign Policy Outlook of China's "Third

- Generation" Elite." *Lampton*, 123-150.
- Nathan, J. Andrew and Ross, Roberts S. (1997), *The Great Wall and the Empty Fortress: China's Search for Security*.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 & Company.
- Ning, Lu (1997),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making in China*.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_____ (2001), "The Central Leadership, Supraministry Coordinating Bodies, State Council Ministries, and Party Departments," *Lampton* (2001), 39-60.
- Oksenberg, Michel (1987), "China's Confident Nationalism." *Foreign Affairs* 65, No. 3. 501-523.
- Robinson, Thomas W. (1994), "Chinese Foreign Policy from the 1994s to the 1990s." Robinson and Shambaugh (1994), 555-602.
- Robinson, Thomas W. and Shambaugh, David, eds. (1994),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Oxford: Clarendon Press.
- Rose, Gideon (1998), "Neoclassical Realism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World Politics* 51, No. 1 (October 1998). 144-172.
- Resenau, James N. (1994), "China in a Bifurcated World: Competing Theoretical Perspective." Robinson and Shambaugh (1994), 524-551.
- Ross, Robert S. (1997), "Beijing as a Conservative Power." *Foreign Affairs* 76, No. 2 (March/April 1997). 33-44.
- _____ (1999), "Engagement in US China Policy." Johnston and Ross (1999), 176-206.
- Saunders, Phillip C. (2000), "China's America Watchers: Changing Attitudes Towards the United States." *The China Quarterly* 161 (March 2000). 41-65.
- Schubert, Gunter (2001), "Nationalism and National Identity in Contemporary China: Assessing the Debate." *Issues & Studies* 37, No. 5 (September/October 2001). 128-156.
- Shambaugh, David (1996),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Calculating Beijing's Response." *International Security* 21, No. 2 (Fall 1996). 180-209.
- Townsend, James (1996), "Chinese Nationalism." *Unger* (1996), 31-55.
- Unger, Jonathan, ed. (1996), *Chinese Nationalism*. Armonk, New York: M.E. Sharpe.
- _____ (1996), "Introduction." *Unger* (1996), 1-30.
- Vogel, Ezra F. (1997), *Living with China: U.S./China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 & Company.
- Wang, Fei-Ling (1999), "Self-Image and Strategic Intentions: National Confidence and Political Insecurity." Deng and Wang (1999), 21-46.
- Wang, Jianwei (2000), "Democratization and China's National Building." Friedman and McCormick (2000), 49-73.

- Wang, Jisi (1994),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A Chinese Perspective." Robinson and Shambaugh (1994), 481-505.
- Whiting, Allen S. (1983), "Assertive Nation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Asian Survey* 33, No. 8 (August 1983). 913-933.
- _____ (1994), "Forecasting Chinese Foreign Policy: IR Theory vs. the Fortune Cookie." Robinson and Shambaugh (1994), 506-523.
- _____ (1995),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After Deng." *The China Quarterly* 142 (June 1995). 295-316.
- _____ (1998), "Chinese Foreign Policy: Retrospect and Prospect." Kim (1998), 287-308.
- Wu, Guoguang (2000), "Conflict Intensity, Dialogue Continues: Sino-American Relations into the New Century." Lau, Chung-ming and Shen, Jiafa, eds. *China Review 2000*.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27-60.
- Xia, Liping (2001), "China: A Responsible Great Powe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 No. 26 (February 2001). 17-25.
- Xu, Guangqiu (1998), "Anti-U.S. Sentiments in China, 1989-96: Sources, Development, and Impact." *Issues & Studies* 34, No. 1 (January 2001). 79-99.
- Yan, Xuetong (2001), "The Rise of China in Chinese Ey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 No. 26 (February 2001). 33-39.
- Yong, Deng and Gray, Sherry (2001), "Introduction: Growing Pains-China Debates its International Futur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0, No. 26 (February 2001). 5-16.
- Zhao, Suisheng, ed. (2000), *China and Democracy: Reconsidering the Prospects for a Democratic China*.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_____ (1997), "Chinese Intellectuals' Quest for National Greatness and Nationalistic Writing in the 1990s." *The China Quarterly* 152 (December 1997). 725-745.
- _____ (1998), "A State-led Nationalism: The Patriotic Education Campaign in Post-Tiananmen Chin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1, No. 3. 287-302.
- _____ (2000a), "'We are Patriots First and Democrats Second': The Rise of Chinese Nationalism in the 1990s." Friedman and McCormick (2000), 21-48.
- _____ (2000b), "Chinese Nationalism and Authoritarianism in the 1990s." Zhao (2000), 253-270.
- _____ (2000c), "Chinese Nationalism and Its International Orientation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5, No. 1 (Spring 2000). 1-33.
- Zheng, Yongnina (1999), *Discover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Modernization,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宋强 等(1996). 《中國可以說不: 冷戰後時代的政治與情感抉擇》. 北京: 中華工商聯合出版

社.

鄭永年(2001), “世界體系, 中美關係和中國的戰略考量”. 《戰略與管理》2001年 5期. 65-77.

宗海仁(2001), 《朱鎔基在 1999: 第一手材料揭開高層決策過程》. 香港: 明鏡出版社.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Relations in the Reform Era: A Critical Review of Previous Discussions

Young Nam Cho*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nationalism, its impacts on the foreign relations, and a proper perspective on their relationship in the reform era. To this end,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previous literatures on this topic. This paper argues that Chinese nationalism in the reform era can be defined as a kind of statism with state-led and state-centric thrust. It was also re-emerged under the Chinese strong feeling of being victimized which had been shaped through the past “century of shame and humiliation.” This paper, however, emphasizes that Chinese nationalism does not directly make an impact on Chinese foreign relations, regardless of whether it has defensive or aggressive peculiarity. Rather, this article highlights that three factors (i.e., the cohesion of ruling elites, the persisten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hinese relations to the United States) make a vital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Chinese nationalism and foreign relations.

*Th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at SNU, Professor(Full-time Lecturer), *China's Political Reform and National People's Congress* (Nanam, 2000) (in Korean); “Symbiotic Neighbor or Extra-Court Judge?: The Supervision over Court by Chinese Local Peoples Congress,” *The China Quarterly* (Forthcoming); “From Rubber Stamp to Iron Stamp: The Emergence of Chinese Local Peoples Congresses as Supervisory Powerhouse,” *The China Quarterly* 171 (September 2002), pp. 724-740, 880-811, e-mail: yncho@snu.ac.kr.